

Experience Report (파견결과보고서)

성명	이민정	학과(전공)	화학과
학위과정	학사과정	파견(참여)기간	2023.07.03-2023.09.08

1. 출국 전 준비사항

A. 프로그램 지원과정

해외인턴을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학교 포탈의 공지를 보고 주저없이 지원했다. 우선, 동경공대에 내가 가고 싶은 연구실을 세 곳으로 추리고 지원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기존에 카이스트 화학과에서 개별연구를 하던 주제와 다른 분야를 체험해보고 싶었기에 경험해본 적 없는 분야에 지원했기 때문에 해당 분야를 왜 연구하고 싶은지,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경험을 토대로 지원서를 작성했다. 면접에서도 그 분야를 연구하고 싶은 이유와 한국이 아닌 해외로 나가 연구를 하고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B. 파견 대학에서의 안내

동경공대에서는 각종 안내를 굉장히 친절하게 해준다. 구비 서류와 같은 공지 뿐만 아니라 기숙사나 기숙사 근처의 편의시설 약도를 제공할 정도로 자세한 안내를 제공했다.

C. 비자 신청 (비자 유무, 신청방법, 소요기간, 경비)

프로그램 절차 상 학생비자가 필요한데, 나는 학기 중에 직접 서울에 가서 비자를 발급 받았다. 그러나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우편으로도 가능하다고 한다. 비용은 5만원 정도에 발급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됐다.

D. 항공권 구입 및 비용

합격 발표를 받은 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대략적인 일정을 전달 받은 뒤에 바로 항공권을 예매했다. 왕복 30만원 안쪽으로 구매했다.

E. 보험 가입 방법 및 비용

보험은 인터넷에서 여행보험을 검색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하나를 골라 가입했다.(혜택이 다 비슷해 보였다.) 여행보험이나 학생보험은 가격이 큰 차이가 없었고 비용은 3만원 정도였던 것 같다.

F. 수강신청 (강의 수강도 함께한 경우) / 연구실 배정 (연구 참여 프로그램인 경우)

나는 강의는 따로 듣지 않고 연구실 인턴 활동만 진행했다. 다행히도 1지망인 연구실이 배정되었고, 일본에 가기 전에 미리 교수님과 메일을 주고받으며 대략적인 연구 주제에 대해 전달받았다. 자세한 사항은 일본에 도착한 후 알게 되었다.

2. 학업 관련 (A. 강의수강과 B. 연구참여 중 해당되는 것으로 작성)

A. 강의 수강 (수업 환경, 수업 내용, 수업 방식, 과제, 시험, 강의 평가 등) - 자세히 기재해주세요

-

B. 연구 참여 (연구 환경, 연구 주제, 연구 방식, 연구 결과 등) - 자세히 기재해주세요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두 달이라는 기간이 실험실에서는 짧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엄청난 성과를 내기란 어렵다. 나의 주제는 flow chemistry를 활용해 새로운 천연물을 합성하는 것이었는데,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실험을 해서 실적을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렇기에 나는 새로운 flow chemistry를 경험하고 각각의 실험 단계를 정확히 익히면서 나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연구실에서는 주로 박사과정 사수님과 함께하며 실험을 배웠는데, 그 누구보다도 세세하게 실험을 알려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 연구를 할 때 생긴 질문이나 아이디어 제안에 대해서도 항상 같이 고민해주시고 답을 찾아 나가면서 연구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연구실 자체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 랩 미팅이 있는데, 다른 분들의 발표를 듣고 자유롭게 질문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다. 두 달 간 열심히 실험을 하면서, 결국 새로운 천연물 합성에 성공할 수 있었으나, 시간 상 최적화까지는 진행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이 남는다.

(+방학 동안 동경대/동경공대에서 열리는 각종 학회 및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런 행사에도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C. 학점 인정 (해당될 경우)

학점 인정을 위해서는 원본성적표와 실라버스가 필요한데, 동경공대 측에서 우편으로 카이스트에 원본 성적표를 보내준다고 안내했다.

3. 비용

A. 기숙사 (숙박)

프로그램 전액 지원이었다.

B. 식사

랩마다 다르지만, 나는 평소에 평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연구실에 있었기 때문에 주로 점심, 저녁은 학교 근처에서 해결했다. 오오카야마 캠퍼스 근처나 지유가오카에 맛있는 식당이 많은데 가격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1000엔 근처)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 있었다.

C. 기타 생활비

관광이나 쇼핑을 제외하면 다른 생활비가 크게 많이 들지는 않는다. 그 중에서는 교통비가 한국에 비해 비쌌는데, 왕복 통학권을 구입해서 통학하는 데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았다.

4. 학교 캠퍼스

A. 학교 안 시설 및 분위기

오오카야마 캠퍼스는 나름 도심지에 있어 활기차다. 카이스트보다 캠퍼스 규모는 작지만, 학교 시설 자체는 매우 쾌적하고 불편함이 전혀 없다. 도서관 뿐만 아니라 카이스트의 문화관처럼 공부할 수 있는 공간(타키 플라자)가 있어서 연구실에서 퇴근하고 다른 일을 처리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했다.

B. 주변환경 및 분위기

캠퍼스 자체에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도쿄에 위치하다 보니 시부야까지도 30분 이내로 소요되며 학교 근처에도 지유가오카(관광객보단 일본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동네)가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좋다. 맛있는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즐기기에는 충분하다.

C. 그 외 사항

카이스트의 문화관처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타키 플라자가 있다. 종종 타키 플라자에 들렀는데, '조금 더 자주 이용할 걸'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다.

5. 언어 사용

나는 일본어를 전혀 모르기에 항상 영어를 사용했다. 교수님이나 사수님과 대화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다른 연구실 분들과 대화할 땐 간혹 어려움을 겪긴 했다. 랩 미팅 때에 구성원 일부는 일본어로 발표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대한 나를 배려해서 영어를 써주려고 노력하시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연구는 주로 사수님, 교수님과 대화하면서 이뤄졌기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

6. 기숙사/숙소 이용(입실/퇴실 시기, 주의사항 등)

입실, 퇴실 날짜를 미리 전달하는 것 말고는 큰 주의사항이 없다. 퇴실은 프로그램 종료 후 하루이틀 정도 안에 이뤄져야했다. 셰어하우스지만 다들 쾌적하고 조용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 가끔 공용공간에서 파티를 하기도 하는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 좋았다.

7. 학교 생활

나는 주로 연구실에서 지냈기 때문에 연구와 세미나/학회 참석 이외의 학교 생활은 크게 없었다.

8. 교환학생 지원 서비스 & 교환학생에 대한 관심도

각종 안내는 메일로 이뤄지는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시고 답변도 매우 빠르게 해주시기 때문에 좋았다. 개인 일정으로 참석하진 못했지만, 프로그램 참가자끼리 당일치기 여행도 기획하고, 각종 식사나 간식 자리도 마련해주는 등 교환학생 지원 서비스가 다양했다.

9. 동아리 등 교내·외 활동

-

10. 여행 등 개인 활동

주말이나 휴가 기간에는 시부야, 신주쿠, 아사쿠사, 가마쿠라, 하코네 등으로 관광을 많이 다녔다. 또한, 도심지에 있다 보니 다양한 맛집까지의 접근성이 좋아서 맛집 탐방을 다니기도 했다. 다만 일본의 여름은 정말 덥기 때문에 오랜 시간 야외활동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11. 그 외 도움 되는 정보 및 주의사항

자신이 성과를 내고 싶다면, 두 달은 정말 짧기 때문에 사전에 교수님과 충분한 논의를 나누고 준비를 마친 후 일본에 가는 것을 추천한다.

12. 파견 소감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두 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기간 동안 그저 새로운 연구를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내 스스로 채워 나가며 깨달은 점이 많았는데, 이는 평소에 내가 생활하던 장소를 벗어나 먼 타지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니 누군가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망설이고 있다면 나는 강력히 추천해주고 싶다. 졸업 후 진로를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나, 그저 해외 연구실을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 모두 이 프로그램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자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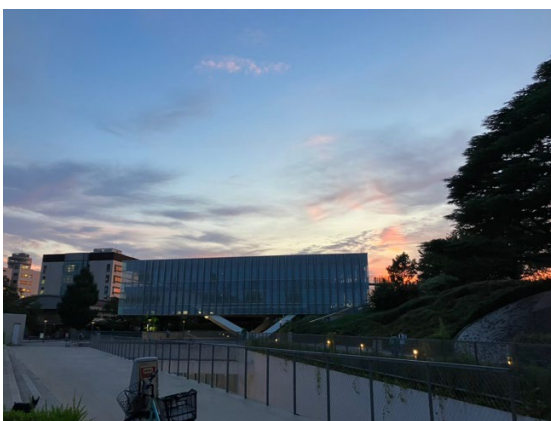
13. 사진 첨부



오오카야마 캠퍼스 정문



오오카야마 캠퍼스 본관 건물



오오카야마 캠퍼스 도서관



오오카야마 캠퍼스 근처 식당



학교와 멀지 않은 시부야